

1

근세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

# 일본에서의 서양문화

➡ 종교의 분리과정을 거쳐 근대학문으로 수용

## 서양학문의 중국판 번역

✓ 천문학을 관을 주도로 함

## 일본의 난학

✓ 의학과 민간의 수요에서 비롯함

# 1 도쿠가와 막부의 사상계

## 유학

- ✓ 일본이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기 전, 사상계의 주류
- ✓ 1630년 하야시 라잔이 막부의 후원으로 우에노에 학교를 세우며 출발
  - ➡ 라잔의 역할 : 도쿠가와 이에야스 행위에 대한 도의성 부여, 막부의 자문, 가신단의 교육
- ✓ 조선처럼 ‘과거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음
  - ➡ 유학이 배타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님



하야시 라잔



➡ 하야시 라잔 가문에  
재정적 지원

➡ '대학두' 라는  
세습적 지위 인정

유학 → 준 관학의 위치에 오름

✓ 공식적 : 이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 경찰력을 앞세운 탄압은 아님



# 1 도쿠가와 막부의 사상계

## 소라리학파

- ✓ 에도시대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었던 유학파
- ✓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 학문의 목적

➡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

비교조적 분위기

이단에 대한 덜  
배타적 분위기

서양 무역이  
중요하다는 성격

➡ 수양학문에 대한  
유연한 입장

## 2 일본의 서양학문 수용사

시대, 교류 대상국에 따라

남만학 南蠻學

✓ 1543~도쿠가와 시대, 포르투갈, 스페인 상인과 교류하며 사용한 용어

난학 蘭學

✓ 1623~1850 중반, 네덜란드 문물 수용시 사용한 말

양학 洋學

✓ 1858~1860, 서양문물의 수용 총칭

서학 西學

✓ 1860~, 동양과 대칭되는 '서양의 학문'이란 뜻

## 2 일본의 서양학문 수용사

### 도쿠가와 막부 260년

- ✓ 난학을 수용했던 시기
- ✓ 일의 쇄국주의 시대
- ✓ 포르투갈 상선의 내항을 금지시킨 1639부터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1858 까지
  - 이 쇄국의 시기에도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서양문물 수입

### 1700년대 초반

→ 서양문물 수용이 엄청난 수준에 이름

### 1800년대 초반

→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의학을 수업한 난학의 전문가가 1000명을 넘어섬

#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

1543년

- ✓ 포르투갈인들이 서양인 최초로 일본에 도착 : '남만인'이라 부름
- ✓ 포르투갈 상인 : 규슈의 여러 항구를 다니며 시계 나침반, 총기류 등 공산품을 팔고 다님

남만무역

1549년

- ✓ 스페인 예수회 선교사 사비에르와 토레스가 가고시마에 천주교 포교

남만교

1551년

- ✓ 야마구치에 최초로 천주교회 '대도사' 건립

1605년 전후

- ✓ 다이묘인 고니시를 포함, 세레자가 70만 명에 이름



#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

## 천주교의 수용

- ✓ 서양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 ✓ 기존의 일본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큰 변화
  - ➡ 일본의 통치자들이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함
  - ➡ 신국 일본의 풍속을 저해하는 사교로 규정

##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부터

- ✓ 일본 내에서 박해를 받게 됨
  - ➡ 천주교 신부 추방, 1596년 스페인 선교사와 일본인 신자 26명 처형

#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



1597년 순교 당한  
26명의 순교지

## ✓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 시행

- 서양과의 외교 단절
- 1623년 영국과의 무역 중단,  
이듬해 스페인과 국교 단절
- 가장 늦게 교역을 시작한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에 상관 설치 허가

## ✓ 후미에 등, 신자 색출 및 처형

1633년

- ✓ 3대 쇼군 이에미쓰 : 6년간 5번에 걸쳐 쇄국령 반포
- 해외도학, 무역통제, 기독교 금지

1637년

- ✓ 시마바라 민란, 더욱 엄격해진 쇄국통제정책

# 네덜란드의 나가사키 상관



도쿠가와 막부 → 4대 쇼군 이에쓰나 대

- ✓ 막부와 번국에 유학자를 기용  
→ 학문과 교육 장려, 문치주의 정책
- ✓ 막부 : 해외무역 독점 및 기독교 탄압

# 네덜란드의 나가사키 상관

네덜란드인의 '참부여행'

✓ 막부가 해외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1644년부터

✓ 네덜란드 상인에게 유럽 정세를 설명한  
'오란다풍설서' 제출 요청

“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은  
일본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유일한  
창구 ”



# 아라이 하쿠세키의 채람이언과 서양기문



## 아라이 하쿠세키

- ✓ 천주교 포교를 위해 잠입한 시도치 심문
- ✓ 이 심문으로 인해 '채람이언'과 '서양기문' 저술
  - ➡ 채람이언 : 서구제국의 지리와 문화 서술
  - ➡ 서양기문 :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논의함
- ✓ 서양의 학술 : 기독교와 분리, 형이하학이라 규정
  - ➡ 서양의 형이하학은 동양에 비해 월등하지만 형이상학은 동양을 따라올 수 없다고 언급
  - ➡ 동도서기론(東道西技論)에 영향을 줌
  - ➡ 서양 문물 수용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됨

# 서양문물 마니아 요시무네



## 도쿠가와 막부 8대 쇼군 요시무네

- ✓ 아라이 하쿠세키의 권유에 따라 서양서적의 수입과 연구에 대한 해금조치 단행

- 이단종교로서 기독교 배제에 대한 자신감 가득
- 조선과 달리 서양무역의 중요성과 유학에 대한 물리적 배타성이 없었음

# 서양문물 마니아 요시무네

## 8대 쇼군 요시무네

- ✓ 서양문물 수용에 적극적
  - ➡ 네덜란드 상인에게 서양에 대한 질문
  - ➡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하게 함

## 1720년 ✓ 서양서적 금지령 완화

- ✓ 막부 관리인 '아오키 곤요'에게 네덜란드어를 배우도록 명령
- ✓ 네덜란드 상관에게 지구의, 시계, 총, 의서, 회화, 지도, 개, 말, 고양이, 참새 등을 서양에서 사오도록 주문
- ✓ 그로 인해 일본의 난학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

## 네덜란드어를 통해 얻은 서양지식의 총칭

남만학

난학

양학


서학

✓ 학문의 질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짐

히로세 히데오

- ✓ 난학 : 서양자연 과학이 체계를 이룬다는 인식 없이,  
한정된 서양자연과학의 성과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 기술로 받아들이는 태도
- ✓ 양학 : 서양과학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학문체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학술로서의 사고’가 성립됐을 때를 말함





## 난학의 이름

✓ 스기타 겐파쿠의 회상록  
'난학사시(蘭學事始)'에서  
처음으로 언급

➡ 스기타 겐파쿠 : 네덜란드어 번역서인  
'해체신서'를 만든 사람

✓ 난학에서는 해부학을 비롯한 의학이 주류

✓ '해체신서'의 번역은 일본 근대 지성계의 중요한 이벤트

2

# 근세 일본의 의학

## 중국 의학이 일본에 전파된 시기

- ✓ 백제와 신라를 통해 불교가 전파되던 시기와 유사
- ✓ 가장 이른 시기 : 414년 신라에서 파진찬 '김무'가 일본에 대사로 왔을 때
- ✓ 적극적 수용을 위해 459년, 백제에 의사 요청
  - ➡ 백제에서 의원 '덕래'를 보냄
- ✓ 이후 승려들을 통해 의학이 일본으로 전해짐

## 긴메이 텐노 때

- ✓ 오나라에서 지충이 와, 침구학 서적인 명당도 등을 가져옴
  - ➡ 이를 시작으로 608년, 에찌니 등을 당나라에 보내 의학을 배우도록 함

## 해부학 관련 중요 지식

- ✓ 중국으로부터 들어옴
- ✓ 가지와라 쇼젠 : 50권에 달하는 ‘돈의초(頓醫抄)’ 편찬
  - 송나라 해부도 ‘구희범오장도’가 실려 있음

구희범이 처형당한 후 의원과 화공이  
그 모습을 그린 것



- 쇼젠은 ‘구희범오장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 다섯 장의 그림을 통해 오장육부와 인체의 모습을 보여줌

“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오장육부도이며,  
전통의학 관점의 인체 구조를 잘 나타냄 ”





### 기존 의학에 의문을 품는 학자들

- ✓ 전통 의학에서 기술된 사람 몸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
-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보이게 됨

### 18세기 “고방파 또는 고의방(古醫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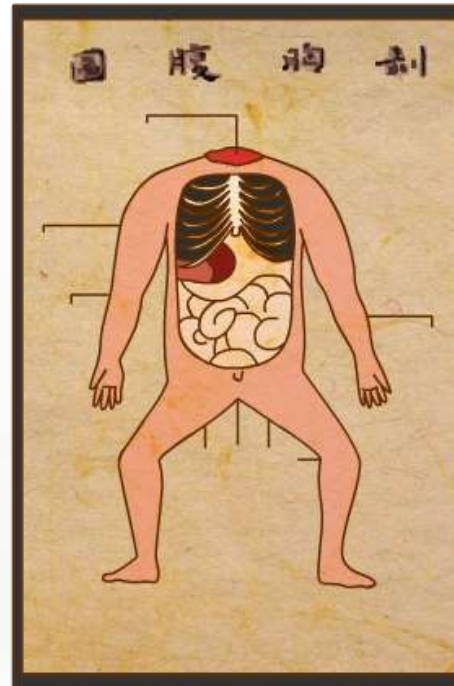
- ✓ 내경을 기반으로 음양론, 장부론을 결합하여 이론화시킨 금, 원대의 의학풍토 비판
- ✓ 철저하게 실증적인 의학이론을 추구함
- ✓ 장중경 약물 효과, 약물에 유의해야 하는 점, 처방 규칙에 대해 저술한 책인 ‘삼한론’이 보여준 임상중시의 학풍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함

고방파

# Q. 정말로 오장육부는 있는 것이고 전통 의학자들의 설명은 타당한가?

## 야마와키 도요

- ✓ 오장육부설 의심
  - 허가 하에 일본 최초로 사형수 시체 해부 및 기록
  - 1759년 '장지' 출간
- ✓ 의구심을 풀기 위해 당대 유학자와 문학자들 방문
  - 유학자 '오규 소라이'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
  - 오규 소라이 : 학문의 방법에 있어 이론 중요 하지만 사물을 온전히 파악하는 '실증적 학문' 전개를 주장함



## 야마와키 도요

“의사들이 옛 것을 말할 때에는 ‘소문(素問)’, ‘영추(靈樞)’가 있는데, 위나라와 진나라 이후로 경전으로 추대되어 다시 이론이 없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 읽어보니, 의학에 하나도 적당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논의로 널리 퍼졌지만, 침구의 방법만을 설명할 뿐이었으니, 이것이 어떻게 의학의 근본이 될 수 있겠는가?”

- ✓ 비판적 읽기로서의 학문을 중시함
-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의학 고전들에 대한 의문을 품음

## 야마와키 도요

- ✓ 영추 : 황제와 기백의 이름, 음양론으로 치장, 신선술과 양생 복합
  - ➡ 치료를 위한 방법인 것처럼 장부와 경락을 이야기한 결과물
- ✓ 의학이론이 황제와 기백에 의해 뒷받침 되는 권위에 비판적
- ✓ 음양론, 인체생리론 치료의 근간이 되는 장부설과 경락설 모두에 대해 부정적
- ✓ 서양해부서가 자신의 관찰결과와 부합된다는 사실 발견



## 야마와키 도요

“지난번에 만인(서양인)이 지은 골절을 해부하여 만든 책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제 보니, 가슴과 배, 여러 장기 모두가 그린 것과 같다. 실제의 것을 따른 까닭에 만리에서도 (먼 곳에서도) 똑같이 부합하니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 ✓ 야마와키 도요의 해부는 일본 최초의 해부라는 점에서 의의
- ✓ 해체신서의 번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여

## 사노 야스다사

✓ 해부 비판의 대표적 인물

‘장자’의 출판 → 일본 의학계에 커다란 반응을 불러옴

✓ 해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 비장지(非藏志) 저술

→ 비장지 : 장지를 비판하다

→ 해부학과 야마와키 도요 비판

“이미 정신과 기운이 사라져버린 장을 살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사노 야스다사



## ✓ 내경 반대

“내경은 성인이 남긴 전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없으며 인체를 해부하는 것이 결코 인륜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의학이 표방하는 인술이 아니다.”

## ✓ 진단과 치료에 있어 해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 제기

“본초의 색과 맛이 장으로 가 본래의 쓰임을 다하는데,  
해부학적 관점에서 인체를 본다면  
이 것은 본초가 갖는 의의가 사라질 것이다”

→ 해부학이 인체 구조 및 기능 파악에 도움은 되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지적

## 다카시 센메이

✓ 비장지에 서문을 쓴 성리학자이자 의사

“역대의 뛰어난 의사들이 옥리나 도축업자에서  
나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책상 물림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 해부가 실제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지적

## 요시마스

✓ 아마외키 도요의 동문. 해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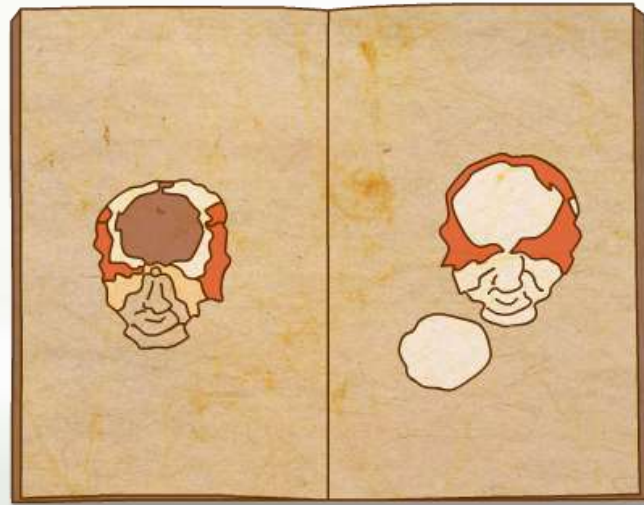
✓ 제자 히데노부 : “시체 해부는 의학에 쓸모 없다.”

→ 베살리우스의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비판과 흡사



## 가와구치 신닌

- ✓ 막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두 번째 해부 진행
- ✓ 가와구치의 선조 : 네덜란드 상관 의사 '카스파'에게 외과술 터득
- ✓ 가와구치의 집안 : 네덜란드의학, 교토의 전통의학 모두 학습
- ✓ 머리 있는 시체, 머리가 없는 시체 2 구 해부
  - 뇌의 모습을 잘 그려냄
- ✓ '장지'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묘사됨
  - 23장에 달하는 해부도에 해부 장기 표시



## 가와구치 신닌

“의학의 길이 내외(內外)로 구분 된 지 오래되었다.  
의사란 무엇인가? 대개 내외를 아울러 통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의사가 내외를 함께 알지 못하면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까닭에, 의사 교육을 할 때에는  
내외를 함께 정통한 것을 최고로 여긴다

✓ 당시 전통의학 종사자들의 외과 및 해부학에 대한 무관심 비판

## 가와구치 신닌

- ✓ 자신의 결과를 서술, 과거의 설들을 종합
  - ➡ 차이점과 옳은 학설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 수행
- ✓ 장지는 오장육부 중심의 장기만 해부, 가와구치는 머리, 무릎, 정강이 뼈 까지 고찰함
  - ➡ 의학에서 다루어야 할 인체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
- ✓ 머리와 사지를 포함한 해부 : 서양의학을 학습한 결과
  - ➡ 전통 의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아마와키 도요  
해부학

가와구치 신닌  
해부학

- ✓ 에도 후기 실증적 학문 풍토의 형성과 발전이 의학에 미친 영향 반영
- ✓ 오장육부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로 해부 진행
  - 기존 고전들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근대적 학문 추구
- ✓ 해시편이 출판된 몇 년 후 해체신서의 편찬에 영향을 줌



3

해체신서  
(解體新書)

# 1 '타펠 아나토미아'의 번역

## 해체신서

- ✓ 1774년에 스기타 겐파쿠, 마에노 료타쿠, 나카가와 준안 등이 번역
  - ➔ 난학의 유행을 불러일으킴
- ✓ 서양의학 수용에 개방적 태도를 조성할 만큼 중요한 저서
  - ➔ 다른 학문 분야나 문화적, 미학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음

## 스기타 겐파쿠

- ✓ 서양인을 야만인으로 규정하는 일본의 대외의식에 자기반성 촉구
  - ➔ 근대 일본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1 '타펠 아나토미아'의 번역

스기타 겐파쿠

✓ 한학과 네덜란드 의학을 한 호기심 많은 의사

마에노 료타쿠

✓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는 학구적인 의사

- ➡ 사법 담당 막부 관리에게 사형수 해부 참관 허가 연락을 받음
- ➡ 사형수의 해부 참관에 '타펠 아나토미아'를 가져가 대조하기로 함

실제 참관

- ✓ 타펠 아나토미아의 해부도가 인체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
- ✓ 3년에 걸친 번역작업 후 '타펠 아나토미아'의 번역본 '해체신서' 탄생

## 스키타 겐파쿠

“오늘 실제로 본 인체 해부는 참으로 하나하나가 놀라움이었다.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적어도 의술로서, 서로가 주군님을 모시는 몸으로서 그 바탕이 되는 인체의 진짜 구조를 모른 채 지금까지 하루하루, 의업을 해왔다는 것은 면목이 없는 일이다. 오늘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이거나 인체의 진짜 구조를 판별하면서 의술을 행한다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변명이라도 될 것이다. 이 ‘타펠 아나토미아’, 한 권만이라도 아무쪼록 새롭게 번역한다면 인체의 내외 구조도 잘 알게 돼, 오늘날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통사(번역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독하고 싶다.”



료타쿠

네덜란드어

겐파쿠



- ✓ 네덜란드어를 알고 있는  
료타쿠가 맹주가 되어 번역 시작
- ✓ 1년반 뒤 1차 번역 마무리
- ✓ 료타쿠 : 완벽하지 않은 번역이니  
번역자로 이름을 올리기  
거부함



# 1 '타펠 아나토미아'의 번역

## 해체신서의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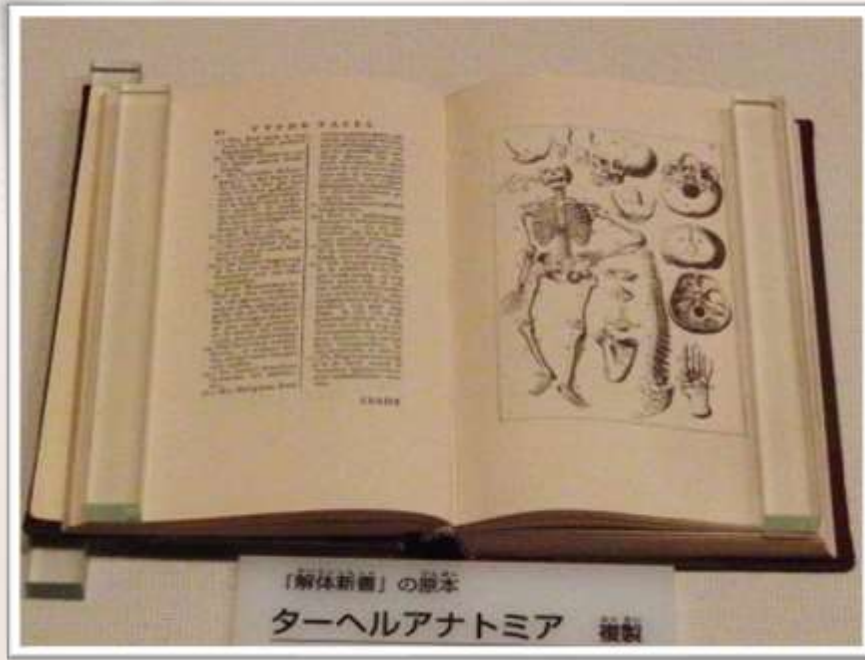
- ✓ 타펠 아나토미아 : 인체 각 부분 기능을 설명, 해부도 첨부된 의학서

해체(解體)

- ✓ 일본에는 새롭게 소개되는 학설

신서(新書)

- ✓ 결의 3년 후인 1774년 8월, 5책, 95매 해체신서 출간
  - ➡ 당시 의학계 수준에서 서양의학의 기본을 알리는 충분한 수준



- ✓ 독일 해부학 교수 ‘아담 쿨무스(Johan Adam Kulmus, 1689~1745)’가 쓴 독일어 해부학책
- ✓ 인체 각 부분의 구조와 기능, 인체 해부도 스물 여덟 장 실림
  - ➡ 복잡한 인체구조, 기능을 잘 요약했다는 평
  - ➡ 라틴어, 프랑스어 등 각 국어로 번역 및 출판됨

헤라루쥬스 디펜(Gerardus Dicen)

- ✓ 네덜란드 외과의사
- ✓ ‘타펠 아나토미아’를 네덜란드어로 번역

네덜란드어판 ‘타펠 아나토미아’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으로 유입

료타쿠와 겐파쿠가 입수

- 
- ✓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서적 입수는 ‘행운’



## 의미

01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인체 도판

✓ 당시 의학자들의 주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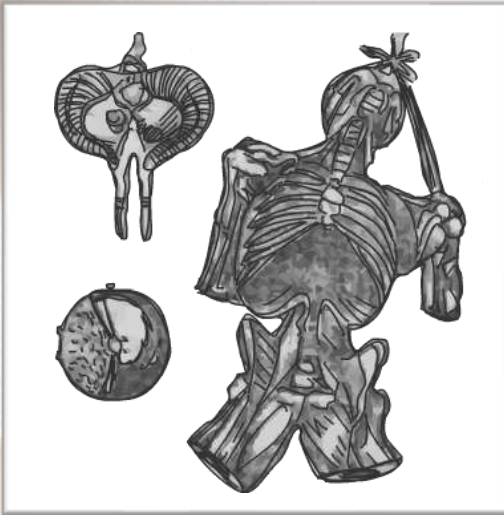
02 '장지' 출판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실증적 학문 추구 경향

03 사실 위주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수요



- ✓ 한문으로 쓰여짐
- ✓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 일본어의 토 부착
- ✓ 뼈의 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해부서에 의거함
- ✓ 다른 곳에서의 인용은 독특한 부호를 표시하여 양심적으로 출처를 밝힘

## 해체신서 출간



영향력

VS.

거센 후  
폭풍

- ✓ 한방 의사들의 반발과 비난이 거세게 일어남
- ✓ 1775년, 난학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한의사는 겐파쿠에게 편지 발송



TO. 겐파쿠

“조선과 유구왕국은 중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과 동일한 **중국 성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의학은 중국에서 9천리나 떨어진  
**서북쪽 변방의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 나라의 말은 중국과 다르고 성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나라들은 **야만인들의 나라** 중 가장 멀리 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FROM. 한의사



TO. 한의사

“중국 자체는 사해 가운데 동방의 바다에 위치한  
한 나라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학 지식은 몇몇 사람의 지혜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실험은 해부에 대한 성인들의 생각이 옳지 않는 것을  
증명했고, 따라서 네덜란드인이나 그들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방기해 버릴 수는 없다.”

FROM. 겐파쿠

## 한방의 반발

✓ 한방 의사들의 반발과 비난이 거세게 일어남

“기이한 것 만을 좋아해 성현의 책을 의심하고  
오랑캐의 책을 믿어 지금까지 전해 온 법을  
어지럽게 하려 하고 있다.”

“쓰잘머리 없고 형편없는 자, 의사들의 적”



인신공격성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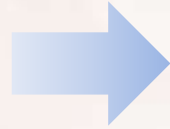
## 겐파쿠의 노력

- ✓ 혹독한 비난, 혹평과 싸우며 서양 의학서 번역 작업 등을 진행
  - 독일의 유명한 외과의사 '로렌츠 하이스터의 '외과 치술' 번역
  - 의학 처방 및 약물조사 연구 병행

## 해체신서 : 많은 의사들에게 큰 자극

- 에도, 네덜란드 데지마 상관에 가 난학을 배우는 계기
- 일부, 난학 사숙을 열어 전국 각지 네덜란드 의학 보급

막부



렉스만이 지금의 홋카이도의  
네무로에 통상을 요구

✓ 난학자들에게 네덜란드어로 된 러시아 관련 서적 번역 명령

➡ 미에노 료타쿠가 <노서아본기동대통약기> 번역

➡ 그 외 난학자들 또한 러시아 관련 서적 번역

1798년 부터

✓ 나가사키 번역관 → 네덜란드 서적 해독 담당

난학이 '천하유용의 학문'으로서 막부의  
인정을 받기 시작함을 의미



# 해체신서 번역의 사상적 중요성

## 겐파쿠의 노력

“중국의 학문이 일본에서 번창했던 것처럼,  
서양학문도 일본에서 번창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중국 학문이 서양 학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 해체신서 출간 1년 후, 한방의사들의 비판에 대한 대답 서술

## 기존 한의학자들

“서양의 학문을 중시하는 것은 야만스러운 일이며  
지금까지의 문화 척도는 조선이었다.  
유구왕국처럼 중국과의 거리에 의해 정해져 왔고,  
중국과 같은 학문을 사용하는 것이 문명국의 기준이었으며,  
네덜란드 등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성인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 해체신서 번역의 사상적 중요성

## 겐파쿠

중화사상과의  
결별을 포함

“중국이 성현의 나라이고 예와 악이 갖추어진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이다.  
천지는 하나의 커다란 공이므로 어느 나라가  
중심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국 역시 동해의 작은 소국이다.  
중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니 지나(支那)라 하겠다.”

“중국의 의서 ‘신농본경(神農本經)’과 ‘소령(素靈)’에서의  
장기 위치가 실제 해부 관측과 다른데, 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며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성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의학의 가르침에 성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 ✓ 화이질서란 중국을 오랑캐라 말하는 다른 민족의 풍속이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

# 해체신서 번역의 사상적 중요성



## 난학 사시

- ✓ 겐파쿠가 난의학 수용의  
체험담을 기술한 것
- ✓ 사상적으로 중요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음
- 서양인을 야만인으로 보는  
일본의 대외의식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 촉구

겐파쿠는 단순한 서양해부학 저서의 번역자가 아닌,  
정치현실과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저술,  
비판한 역사가로 평가됨

# 해체신서 번역의 사상적 중요성

## 1774년 해체신서 번역

- ✓ 중국과 서양의 사상적 자리 바꾸기 진행에 물꼬가 트임
  - 서양 학문의 직접 번역서 : 사상 흐름에 큰 파장
- ✓ 서양에 대한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줌

## 쓰다 사우키치

“해체신서를 비롯한 난학은 일본이 유교사상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 에도 시대

- ✓ 도쿠가와 막부가 정식으로 수교하는 유일한 국가는 조선
  - ➡ 조선 통신사의 왕래 등을 통해 양국 교류
- ✓ 총 열 두번에 걸친 조선 통신사의 방일

## 1771년 조선 영조

- ✓ 일본에서는 난학,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융성한 시기

## 서양 문물 : 중국 → 조선으로 전달

- ➡ 사신 '이광정' 등이 유럽 지도 '곤여만국전도'를 갖고 귀환
- ➡ 이탈리아인 마테로 리치의 천주실의도 전해짐

## 천주실의

- ✓ 이수광 등 조선학자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바꿈
  - ➡ 의식 확대에 영향을 줌
- ✓ 소현세자 : 예수회 소속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로부토에게 서양 근대과학과 관련된 지식 및 천주교를 소개 받음
  - ➡ 돌아온 지 두 달만에 사망
  - ➡ 서양 근대 문명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최초의 기회를 잃음



### 주세균징 - 아담 샬

✓ 기독교 교리서, 그리스 철학,  
갈레노스 의학 소개

➡ 성호 이익 : 서국의(西國醫)라 소개함

“ 서양 의설이 중국 의학에 비해  
더욱 자세하니 가히 망할 수 없을 것 ”

### 연암 박지원

✓ 1780년, 열하일기를 통해 네덜란드 의학 소개

➡ 해체신서 발표 6년 후의 일

## 우두종법

- ✓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
- ✓ 발견 10년째 되던 1805년, 조선에 전해짐
- ✓ 다산 정약용이 '마과회통' 권말에 '종두기법'으로 소개함

주제군징이 조선에 수입된 후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서양 의학이 소개됨



## 조선의 의사

- ✓ 서양 의술을 보고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함
  - ✓ 중국에서 한역된 서적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촉
  - ✓ 조정의 서학에 대한 탄압으로, 실제 의학에 적용 불가
  - ✓ 성리학이 지배한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서학을 공부할 시 목숨을 걸어야 했음
- 
- ➡ 일본 : 난학 발전, 서양의 과학과 문물이 실생활에 적용, 근대적 토양 기반 조성
  - ➡ 조선 : 서양 과학의 지식 수용이 더딜 수 밖에 없음  
개화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됨

4

난학의  
영향과 일본의  
근대화

## 해체신서에 영향을 받은 의사



나가사키에 유학,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의학,  
난학을 배움

- ✓ 18세기 말~ 19세기 전반 : 일본 각지에 난학사숙 설립
  - 오쓰키 겐타쿠 : 난학사숙, 시란도(芝蘭堂)를 열게 됨
- ✓ 시란도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다시 고향에 난학사숙 설립
- ✓ 많은 경우,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제자 육성
- ✓ 난학자 : 사숙에서 해부학, 병리학 등의 난학 서적 번역

1811년

- ✓ 막부가 공식적으로 서양 서적 번역에 대해 허락  
→ 네덜란드 서적 번역이 활기를 띠게 됨
- ✓ 이전 까지 나가사키의 통역사가 주로 번역
- ✓ 허가 후 난학자 중심의 번역 작업 추진

해부학

내과

외과

산과

소아과

전문적 번역 진행



## 19세기

- ✓ 체제 비판론, 경세론과 연결
  - ➡ 적극적인 서양문물의 수용 주도
- ✓ 해체신서 출간 후, 천문, 지리, 수학, 병학, 박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서적이 일본어로 번역됨
  - ➡ 서양의 새로운 과학지식이 일본으로 유입
- ✓ 영어문법책, 영일사전 등이 만들어짐
-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유인력 등 천문 지식 소개

## 난학사숙의 역할

- ✓ 의사 후보생들에게 서양 의학 전수
- ✓ 서양 의학을 지방으로 보급
- ✓ 막부 말기와 메이지유신 시대에 걸쳐 일본 변화의 중요 역할 담당

일본 육군 창설자 '오무라 마쓰지로'

게이오 대학 설립자 '후쿠자와 유키키'

일본 육군 창설자 '오무라 마쓰지로'

## 후쿠자와 유키키

- ✓ 일본 근대화와 제국주의 노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상가

“일본의 근대화 모델을 아시아가 아닌 서양 문명국과  
진퇴를 함께한다는 ‘탈아입구(脫亞入歐)’에 두고 문명 개화  
추진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분할에 일본도 관할해야 한다.”

- 아시아 국가는 미개한 나라라는 시각
- 이들 나라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 하는 ‘아시아 멸시관’에 영향
- ✓ 간파쿠시대 주류 사상계를 100년이 지나지 않아 역전시킴



## 난학의 영향

- ✓ 막부 말에서 메이지 유신기 까지 일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 몇몇 의사들의 개척가적 도전정신으로 일구어낸 난학의 발달
  - 일본 근대를 바꾸는 토양 역할
- ✓ 조선 침탈, 대륙 침탈의 기반 사상으로 발전함
- ✓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극복
- ✓ 실증주의적 사고방식 바탕의 서양의학 수용
  - 일본을 발전시킨 계기
- ↪ 갈레누스 권위에 대항해,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발표한 베실리우스